



# 반사회적 인격장애(1)

저자 **최혁재**

경희의료원 한약물연구소 부소장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 개요

폭력적인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두뇌의 특성을 일탈하여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로 분류하고 있다. 선천적으로 전두엽의 기능이 미약하고 공감능력이 극도로 부족하고 회로애락과 양심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범행의 순간에 강렬한 자극을 느끼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고려와 대처가 필요한 때이다.

## 키워드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전두엽, 공감능력, 양심부재

## 양심이 없는 사람

### 1. 포식자들

#### 1) 태풍 ‘매미’와 함께 한국사회를 강타한 사건

처음에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생각되었다.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강남구나 강북의 고급 주택가에 거주하던 부유층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분노의 표출이 범행동기라는 것이 수사의 출발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한국사회를 뒤흔들며 결국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이후, 가장 충격적인 연쇄살인의 주범 유영철이 2003년 시작한 연쇄살인 행각은 그 다음해인 2004년으로 이어지면서 패턴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3월부터 7월 사이에 발생한 8건의 살인사건 중 7건의 피해자가 전화방 도우미와 출장마사지사로 한정된 것이다. 둔기에 의한, 피해자를 유인해서 살인한 수법들도 유사했다. 결국 유흥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유영철은 검거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으로 남았다. 그는 무려 20여명을 살해했고 범행수법도 토막살인과 암매장이 동반된 잔혹함의 극치였던 것이다.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후, 현재 사형수감방에서 사형미결수로 복역 중이지만 종종 난동을

피우는 등 그의 악행은 아직도 끝이 났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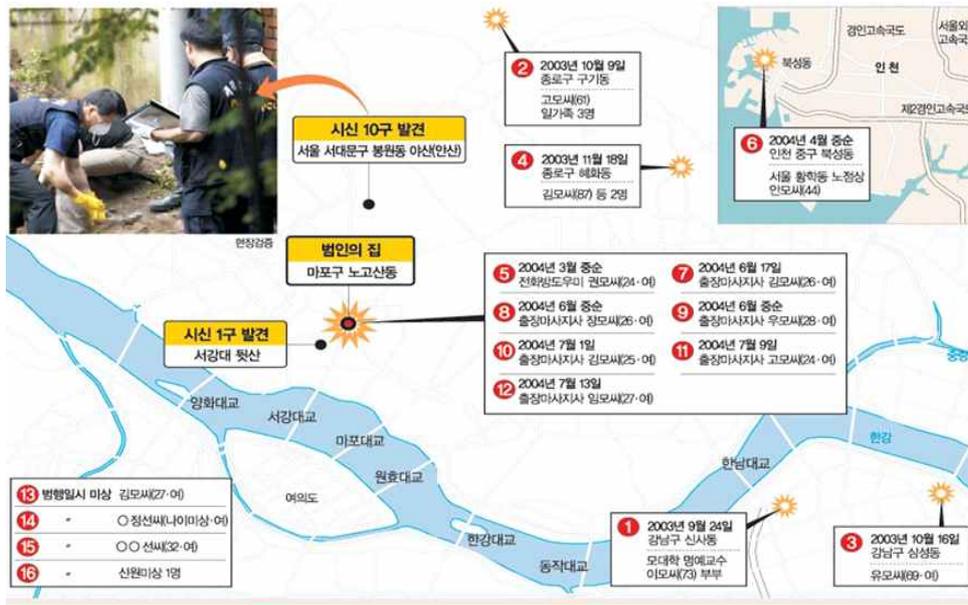


그림 1. 유영철의 연쇄살인 행각(출처:노컷뉴스)

2) 모방으로 시작된 연쇄살인

유영철이 서울 전역에서 연쇄살인을 벌이고 있을 무렵인 2004년부터 또 다른 범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연쇄살인이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서울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2004.1~2006.4까지 총 14명의 사람들이 죽고, 20여명이 치명적인 중경상을 입었던 것이다. 범행은 극도로 잔인했다. 처음에는 어두운 골목에서 서 있다가 지나가는 여성을 무작정 흥기로 찔러 살해하는 일이 이어졌고, 단조로움을 느낀 범인은 수법을 바꿔 가정집에 침입하여 잠자는 사람을 살해하곤 했다. 그러다가 피해자와 격투가 벌어지면서 도주 중 검거된 것이다.



그림 2. 정남규의 연쇄살인 행각(출처:동아일보)

범인의 이름은 정남규. 호송차 안에서 그가 남긴 말은 ‘완전범죄는 끝났다’였고, 이를 들은 경찰은 보통 범인이 아님을 직감했다. 1,000명을 채워야 하는데 뜻을 이루지 못해 원통하다는 말로 담당 수사관을 아연 실색케 하기도 했던 그는 가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고 과학수사 잡지를 탐독한 흔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도구와 복장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치밀했다. 늘 운동과 건강식품 섭취를 통한 체력유지에 최선을 다했고, 범행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의 성공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유영철의 소행으로 알려졌다가 진술을 반복하면서 미궁에 빠진 2004년 7월의 이문동 여성 살인사건의 진범이 자신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모방범죄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는 그의 범행이 유영철을 경쟁상대로 의식하며 그를 넘어서겠다는 황당무계한 경쟁의식으로까지 진전된 것이다. 결국 그는 사형이 확정되면서 더 이상 아무도 죽일 수가 없게 되자, 마지막으로 자신을 죽이고 만다. 감방 안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 3) K의 미스터리

“개는 요것만큼도 흠잡을 데가 없었던 애예요. 그 정도로 착실했던 애예요”, “젊은 애라도 내가 배울 점이 있었던 애였거든. 원체 착실했던 애였으니까”, “참 심성이 착한 애데 여자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K에 대한 주변 이웃들의 증언이다. 하루에 열 번을 만나도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생글 생글 웃어가며 인사했다던 K. 그러나 K의 정체는 경기 서남부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여성연쇄살인 사건의 주범 강호순 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선한 것처럼 위장을 했지만, 그의 다른 모습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냉혹한 살인마 그 자체였다.



그림 3. 강호순의 연쇄살인 행각(출처:세계일보)

9명의 부녀자를 납치하여 성폭행 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 외에도 현주건조물 방화 및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된 그를 수사하던 수사팀은 뭔가 퍼즐이 빠져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그가 첫 번째 살인이라고 자백했던 노래방 도우미의 살인과정에서 이른바 ‘주저함’이 결여된 것을 발견한 것이다. 아무리 냉혹함을 가졌다고 해도 익숙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살해한 다음 암매장하는 과정에서 능숙함만이 남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심문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범행을 자백할 때에도 수사관들하고 게임을 하듯 행동했다. 어디까지 밝혀냈는지를 확인하면서 정 버틸 수 없는 것만 소위 ‘간을 보듯’ 하나씩 털어냈고, 그 과정에서 노래방 도우미보다 앞서 군청 여직원을 살해했음도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가족으로까지 이어졌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네 번째 부인을 사망케 한 것이다. 큰 화재가 아니었고, 얼마든지 사람을 구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호순은 달려온 사람들에게 집안에 사람이 남아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마치 술에 취해 미처 피신을 하지 못한 것처럼 위장만 해놓았다. 그가 탄 보험금은 4억 8천만 원. 그러나 그가 이전에 수도 없이 저지른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해 탔던 보험금까지 합하면 훨씬 더 큰 금액을 편취했다. 그와 오랜 친구였다는 고등학교 동창의 얘기에 따르면, 그 외에도 강호순은 여성에 대한 편력이 어렸을 적부터 지나쳤다는 것이다. 결혼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들과 교제를 하며, 과도한 집착을 보였다는 것이다. 결국 그도 현재 사형확정 후, 사형수 감방에 있다. 물론 그가 저질렀을 것으로 심증은 가지지만, 끝내 밝히지 못한 미제 사건들도 술하다.

#### 4) 희대의 보험사기극, ‘엄여인 사건’

모든 범행의 실체는 다 알 수 없는 범이다. 수사에 의해 밝혀지고 법정에서 확증된 것보다 진실은 더 큰 모습을 갖고 있을 경우가 많다. 2005년, 희대의 보험사기극이자 잔혹성으로는 어느 연쇄살인범에 못지않은 행각으로 충격을 주었던 ‘엄여인 사건’의 주인공 엄인숙도 10가지 항목 24가지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되어 있지만, 그녀의 실제 악행은 가려진 것도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림 4. 엄인숙의 범행행각(출처:그것이 알고 싶다)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그녀가 선택한 경로는 보험사기. 첫 번째 희생자는 첫 번째 남편이었다. 우울증 치료제를 먹어 혼수상태에 빠진 남편을 넘어뜨려 뇌진탕에 빠트린 뒤, 상해보험금을 타고 이후에 또 우울증 치료제로 정신을 혼미케 한 뒤, 옷핀으로 눈을 찔러 실명시킨 뒤부터 본격적인 만행이 이어졌다. 늘 약에 취하게 한 상태에서 얼굴에 끓는 기름을 끼얹고, 자해한 것처럼 위장하여 여러 번 칼로 찔러 결국 합병증으로 사망케 하여 보험금을 수령했다. 장례식 당일 나이트클럽에서 유혹한 둘째 남편에게도 같은 범행이 이어졌다. 학력, 신분, 집안, 결혼내력 모든 것이 위장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건강한 남편이 갑작스럽게 위험에 빠지자 의심하는 시댁 식구들을 속이기 위해 영혼결혼식까지 벌이며 눈을 속인 뒤, 사망보험금을 타고 자취를 감췄다. 그녀의 잔혹성은 자신의 가족에게로 이어졌다. 어머니와 친오빠에게 쥬스에 우울증약을 섞어 먹인 후에 차례로 실명시켜 보험금을 탔고, 어머니의 집을 팔아 탕진한 다음에 이사 갈 날이 되자 불을 질러 무마하려 했다. 입원한 자신의 친오빠를 살해하려다 실패하기도 한 그녀는 이후에도 집을 나와 가사도우미를 속여 얹혀살다가 결국 그 집에 불을 질러 가사도우미의 남편을 사망케 했다. 결국 그녀는 가사도우미가 입원한 병원에 불을 지르려다 잡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그녀의 행적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보험금 내역을 뽑아보면서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자신이 마약을 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짓말을 일삼아 피병 및 경계선 인격장애<sup>1)</sup>가 의심된다는 소견까지 받았다. 그녀가 무기징역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언제 탈옥해서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 2.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무엇인가?

전술했던 4명의 범죄자들은 대표성이 있을 뿐이지, 이런 반사회적 범죄를 태연하게 저지르는 사람들은 사실 이들 뿐만은 아니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잘 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들까?’ 하는 말들은 이들의 태연함 앞에서 공허하기까지 하다. 어릴 적부터 성선설(性善說)의 시각에서 사람들을 보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이들이 왜 그렇게까지 잔인함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연쇄살인은 인간의 본성과 잘 맞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삼국지에 나오는 맹장 장비같은 용맹한 사람도 잠잘 때마다 자신이 전쟁터에서 죽인 혼령들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이 현상은 정신적 외상인 트라우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살인은 대부분 우발적 상황에서 일어나고,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사람들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나 심지어는 위험한 상황에서 정당방위로 무기를 사용한 경찰관에게도 ‘정서적 플래시백 현상<sup>2)</sup>’의 상태로 후유증은 남기 마련이다. 그래서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에게는 반드시 사회생활로의 복귀전에 심리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폭력적인 상황에 익숙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관해서 미군 유격대와

- 1) 전체 성격장애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불안정한 대인관계, 반복적인 자기 파괴적 행동, 극단적인 정서변화와 충동성을 나타내는 장애이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으며, 만성적인 공허감과 조절하기 어려운 분노, 스스로 자해도 할 수 있는 충동성을 나타낸다. 자살의 위험률이 높다.
- 2)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은 과거의 사건이 생생하게 재현되는 형태로, 마치 시간을 되돌려 다시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낙하산부대 중령이었던 데이브 그로스먼은 그의 저서에서 “어느 시대의 전투원들이든 정말로 적을 죽일 수 있고 죽여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법적 살인인 전투행위에서도 인간의 양심은 동일하게 상처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연쇄살인은 평범한 사람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범죄자들과 가까운 환경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범죄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결국 정신의학적으로도 이 같은 기존의 관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들을 반사회적 인격장애(ASP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를 가진 이상 인격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연쇄살인마들을 요즘은 흔히 사이코패스(Psychopath)라고 부르고 우리 사회에는 유영철 사건 이후로 이 사이코패스의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정신 진단명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것이다. 이미 서구권에서는 이 사이코패스로 진단되기 시작한 범죄자들은 꽤 많았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이코패스 범죄자들만 봐도 아래와 같다.

- ▣ 존 게이시 - 미국 일리노이주 토건업자. 아이들을 위해 어릿광대로 분장해서 청년 상공회의소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나 1970년대에 32명의 소년을 살해하고 자기 집 지하의 좁은 통로에 암매장했다.
- ▣ 케니스 비양키 - ‘언덕의 교살범’이라고 불린다. 1970년대에 로스엔젤레스 지역에서 12명의 여성을 강간, 고문, 살해했다.
- ▣ 테드 번디 - 미국 최고의 연쇄살인범. 1970년대 중반에 수십명의 젊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플로리다주에서 처형되었다. 2002년 이 사건은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와 같이 마음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가책도 받지 않고 상처도 남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는 두뇌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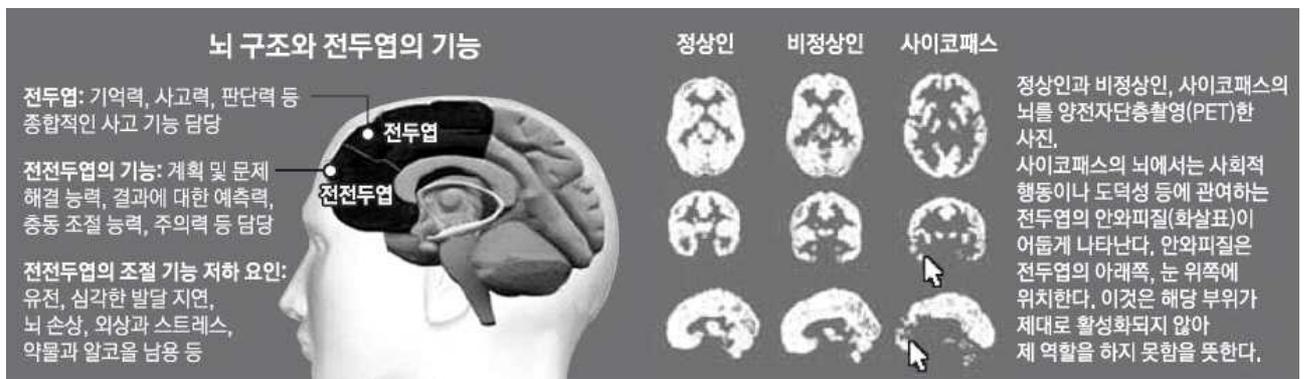


그림 5. 전두엽의 기능과 사이코패스의 두뇌구조 비교(출처:서울신문)

대뇌에서 약 60% 이상의 부피를 차지하는 전두엽(frontal lobe)은 두뇌 앞쪽에 위치하면서 감정을 조절하고 의욕과 창조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더 앞쪽인 전전두엽은 목표를 추구하고 계획을 세워 판단과 결정을 행하여, 충동을 조절하기도 하고 자기 성찰과 반성, 주의집중 등을 조절하는 영역이다. 즉, 인간의 희로애락을 느끼고 양심이 존재하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인성을 성장시켜주는 인간의 본질적인 삶과 직결된 영역이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이 기능이 현저히 낮거나 후천적으로 이 영역에 지대한 손상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이들과 전혀 다른 품성을 갖게 된다. 전반적으로 수동적이고 무관심해지며, 생활 자체가 지루한 삶의 연속이 되기 쉽다.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감정과 충동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강박적인 집착을 보이거나 중독에 취약해지기 쉽다. 이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양심을 잘 못 느낀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 놓고도 가책을 못 느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 발단이 된다.

몬트리올 의대의 연구팀이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연구팀과 협력해서 2015년 ‘랜싯 정신의학’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뇌는 체벌의 과정을 통해 잘못됨을 학습하는 부위가 망가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뇌를 자기공명영상 장치로 촬영한 결과, 체벌을 받을 경우 활성화되어야 하는 전두엽내의 섬엽(insula)과 후측 대상회(posterior cingulate)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긍정적인 결과만 기대하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학습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동정심과 죄책감, 당황스러움 등의 사회적인 기본적 감정을 처리하는데 관여하는 전문측 전두피질(anterior rostral prefrontal cortex)과 측두극(temporal pole) 부위에서 두드러질 정도로 수축이 나타났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예 잘 못 느끼고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이해하는 부분이 약해서 감정이입 자체가 잘 안 된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즉, ‘공감’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감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 2. 공감이 안 되는 이들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이코패스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어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책하고, 사과하며, 삶의 방향을 트는 과정들을 통해 사회화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은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없다. 오히려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껴야 할 전두엽의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일상 자체가 지루함의 연속이다가, 실수나 아니면 미필적 고의 등으로 인해 인명상해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일반인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 즉, 일반인들은 자신의 책임으로 불의의 사고가 생긴 것에 대해 충격을 받고 어떻게든 수습을 하려고 애쓰는데 집중하면서도, 그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지만, 공감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이코패스들은 오히려 짜릿한 스틸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지루했던 삶에서 돌파구를 찾은 느낌을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종의 ‘각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기상천외하다. 연쇄살인마 테드번디는 검거 후에 인터뷰에서 “과거에 무슨 짓을 했던 나는 상실감이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과거를 되돌릴 수 있나요? 과거와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꿈에서나 가능할까?”나, “죄의식? 그건 사람을 통제하

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게 바로 환상이죠. 사회적 통제 수단 중 하나로 매우 해로운 겁니다. 우리 몸에 아주 나쁩니다. 행동을 통제하는 데는 죄의식의 남용보다 더 좋은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은 듯 했고, 미국 금주법 시대에 잔인한 범죄를 주도하며 이익을 챙겼던 알 카포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나는 내일 플로리다로 간다. 훌륭한 시카고 시민들이 마실 술은 이제 재주껏 손수 구하라고 해라. 나는 그 일에 신물이 난다. 도통 보람은 없고 고통만 가득하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시기를 공공의 후원자로 살아왔다.”고 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 수많은 사람을 죽음과 고통에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공공의 후원자로 지칭한 이 말을 들어볼 때, 얼마나 그들의 생각이 일반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림 6. 전남 보성 어부살인사건 개요(출처:그것이 알고 싶다)

비단 외국의 예에서 찾을 것도 없이 유명철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그를 모 신문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다. 왜 그는 20건의 살인사건에서 모두 둔기를 사용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했는데, 그의 대답은 모골이 송연한 것이었다. 살인의 시작 전에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흥기로 찌르면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죽음 직전까지 도망을 가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둔기로 내리쳐봤더니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도망을 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둔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얘기했던 비정한 사회와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복수 같은 것은 범행동기와 크게 상관없다는 얘기가 된다. 역시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전남보성 어부 살인사건의 오종근도 인터뷰에서 예상외의 얘기를 했다. 대학신입생 커플을 성추행하려다 살해한 뒤,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20대 여성 2명을 물에 빠뜨려 살해한 그에게 피해자

들에게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며 그는 아직까지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할 수 없이 자백하기 전까지도 전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는 검거되었을 때에도 일관되게 자신의 살인은 피해자들의 탓과 운명 때문이라는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이들에게는 피해자의 고통이나 양심의 압박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할 때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양심의 찢림을 느낀다. 이런 양심의 제어기능에 대해서 심리학자인 프로이트는 ‘초자아(superego)’로 설명했다.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서 어린 아이들의 정신은 훗날 현실 세계에서 맞닥뜨릴 외적인 권위들을 대변하는 부모를 점점 대체해갈 내면화된 권위자라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출발하지만, 결국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장치를 가지는 데,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선한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경우를 점점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알게 된다. 끊임없이 반사적으로 자문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생각을 비교해보며 자신들의 결정과 행동을 검토해보기 때문이다. 결국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표현되는 가장 큰 분수령은 양심의 존재일 것이다.

## 약사 Point

1. 연쇄살인 등 사회적인 중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특징은 폭력적인 상황에 대하여 거부감과 정신적 외상을 느끼는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2.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들은 선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양심과 공감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네이버 지식백과, 생명과학대사전
2.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3. 국가정보포털
4.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홈페이지 질환정보
5. 위키백과
6. 그것이 알고 싶다, 437회, 2007.7.21. 방영
7. 그것이 알고 싶다, 705회, 2009.2.21. 방영
8. 진단명:사이코패스, 로버트 D. 헤어, 2005, 바다출판사
9. 당신 옆의 소시오패스, 마사 스타우트, 2008, 산눈출판사
10. 천재의 두 얼굴, 사이코패스, 케빈 더튼, 2013, 미래의 창
11. 사이코패스I, 안성조, 서상문, 2009, 경인문화사
12. 사이코패스, 정서와 뇌, James Blair 외, 2012, 시그마프레스
13. 사이코패스 테스트, 존 론슨, 2011, (사)한국물가정보
14.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dyars/220981085044>
15.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23008021>
16. 동아사이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6004>
17. 한국경제TV,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4&aid=0002130965>
18. 동아사이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6426>
19. 일요시사,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24>
20. 스포츠경향,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cat=view&art\\_id=200710012211463&sec\\_id=560101&pt=nv](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cat=view&art_id=200710012211463&sec_id=560101&pt=nv)